

TRAVEL REPORT FORM

출장보고서

결 재	팀장	부서장	원장	
	03/22 김형진	03/22 윤여훈	03/22 정홍상	
협 조				

I. Travel Overview 출장개요

1. Traveler(s) 출장자

Department 소속	Position 직위(직급)	Name 성명	Note 비고
경영기획실 기획평가팀 (전 응용사업본부)	팀장 (전 본부장)	김형진	

2. Travel Period 출장기간

- 2018년 3월 12일-18일

3. Occasion and destination 행사 및 출장지

- 제47차 IPCC 총회, UNESCO 본부, 파리, 프랑스

II. Major Activities 주요업무 수행내용

1. Main Contents and Activities 주요내용 및 활동

- 제47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에 정부대표단으로 참석
- 총회에서 논의된 의제 분석 및 대응 지원
- ‘제48차 IPCC 총회 장소 및 일정’ 의제와 관련하여 정부대표단 발언문 작성 지원
-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영향 및 기후 분석을 위한 자료 및 시나리오 지원 태스크그룹(TGICA)’, ‘영향 및 기후 분석을 위한 자료 및 시나리오 지원 태스크그룹의 미래에 관한 태스크포스(ATF-TGICA) 경과보고’, ‘개도국의 IPCC 활동 참여’ 의제와 관련하여 집중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전문 작성 등 지원

※ 첨부문서(발언문, 전문) 참조

2. Relevance to APEC Climate Center’s Activities 결론 및 소감

□ 핵심 요지

- (30주년 기념행사) 3월 13일 화요일, 제47차 IPCC 총회 개회식 종료 후부터 같은 장소에서 오후 18시까지 IPCC 3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었음
- (AR6 집필진 선정 경과 보고(의제7)) 모든 WG 보고서의 저자 선정 결과 성별 균형이 개선되고, 개도국 및 최초 참여 저자 비중이 증가함. 또한 선정 과정에서 지역간(inter-regional)·지역내(intra-regional) 대표성을 최대한 고려했으며 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힘

- (TGICA 장기비전 채택(의제11)) 제6차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TGICA의 장기 비전을 ▲자료 활용 증진을 위한 역량 배양의 자체 운영 지양, ▲기후변화 평가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자료와 시나리오 지원 집중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TGICA를 TG-DATA로 개명함
- (파리협정 하의 전지구적 이행점검과 IPCC 업무 조율(의제12)) 전지구적 이행점검과 IPCC 주기 조율을 위한 태스크 그룹의 위임사항 초안에 대해, IPCC 활동의 과학적 건전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태스크 그룹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를 모두 참여시키고 의장단 뿐 아니라 TSU도 함께 활동에 참여하자는 회원국의 제안을 반영한 최종 결정문을 승인함
- (제48차 총회 시기 및 장소(의제18)) 신도식 수석대표(기상청)는 2018년 10월 첫째주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 승인을 위한 제48차 IPCC 총회가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될 것임을 알림

□ 관찰 및 평가

- (의제3.2 자원 동원) 제6차 평가주기 시작 시점부터 제기되었던 IPCC 재정상의 어려움은 미국이 신탁기금 공여를 중단함에 따라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EU 및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이 신탁기금을 증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했으며, 말리, 모로코 등 개도국들도 신규 공여를 약속함
 - 우리나라는 현 의장국으로서 제6차 평가 종합보고서 수립을 위한 기술지원단(TSU) 설립 예산 지원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함
- (의제4 재정안정성을 위한 임시 태스크그룹) 자원동원 옵션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낮은 응답률로 인해 추가적인 자원동원 옵션을 제안할 수 없어 다음 번 총회까지 태스크 그룹의 활동이 연장되었으며, 여러 회원국의 기여 증대로 단기적인 재정안정성 문제가 해소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조달을 위한 옵션 논의 및 각 국가별 자발적 기여와 관련된 장애(barrier)에 대한 파악, 다른 국제기구의 자금 조달 메커니즘 운영으로부터의 지식 습득의 필요성이 논의됨
 - 우리나라는 IPCC-48차 총회 이전에 수행된 자원동원 옵션에 대한 선호도 조사와 관련된 서한을 수령하지 못했으며, 추후 다시 수행될 선호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 해당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음
- (의제5 장학 프로그램) 개도국의 젊은 과학자들의 IPCC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IPCC 장학 프로그램에서 챗터과학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개도국(특히 최빈개도국)의 젊은 대학원생 및 박사후연구원들에 대한 장학금과 개도국의 역량 배양을 위한 IPCC 장학프로그램의 목적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AR6 기간 중 장학프로그램에서 개도국 챗터과학자들의 출장 및 사례금을 지급하자는 결정문이 도출됨
 -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들의 IPCC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제6차 평가보고서 챗터과학자 모집 시 학계에 홍보할 필요가 있음
 - * 보고서 저자들의 자료 수집, 표·그림 수정 등 보고서 작성 작업을 돕는 젊은 과학자들로, 자원하여 무보수로 참여하고 있음
- (의제6.1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 경과보고)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 및 요약보고서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8차 IPCC 총회에서 회원국의 승인을 목표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작성되고 있음
 - 2018년 12월 COP24에서 개최될 탈라노아 대화에 1.5°C 특별보고서를 주요 투입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UNFCCC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을 인지하고, 회원국 정부와 집필진 모두 일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의제7 AR6 집필진 선정 경과 보고) 저자 선정 결과 성별 균형, 개도국 참여 비중에 상당한 개선이 있었으나, 저자 선정과정의 투명성대한 논의 및 선정되지 못한 전문가들의 향후 IPCC 활동 참여 의지 저하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저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개선의 필요성이 논의됨
 - 저자 선정 과정에서 국제학술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참고 되므로, 국내 전문가들이 실적 정보를 자주 갱신하도록 독려해, 저자 선정 과정에 장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선정되지 않은 전문가에게 저자 외에도 IPCC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향후 IPCC 활동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여성 저자가 선정되었으나(4명/11명), WGIII의 경우 선정된 여성 저자가 없으며, 이처럼 성별 균형이 확보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여성 전문가 양성이 필요함
- (의제11 ATF-TGICA 활동 보고) TGICA의 장기 비전이 기후변화 평가를 위한 자료의 취합과 활용에 집중되고, 3개 DDC 운영국 중 영국이 DDC 운영을 위한 현물 기여가 장기적으로 보장될 수 없음을 언급하는 등 IPCC에서 TGICA/DDC의 기능과 역할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의제12 파리협정 하의 전지구적 이행점검과 IPCC 업무 조율) 동 태스크 그룹에 우리나라도 참여하여 활동 예정인 바, IPCC 절차를 준수하여 태스크 그룹의 본래 취지에 맞는 권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아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의제 13 성별) 금번 총회에서 IPCC 내 여성의 참여 증진(특히, 개도국 출신 여성)을 위한 젠더 태스

크그룹이 설립되어 제49차 IPCC 총회까지 젠더 이슈에 관한 리포트가 작성될 예정인바, UNFCCC를 포함한 여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IPCC 내 개도국 여성 전문가의 활동이 확산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우리나라 또한 국내적으로 기후변화 과학 분야의 여성 전문가 모색 및 홍보를 통해 IPCC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 (의제15 개발도상국의 IPCC 참여) IPCC 총회나 전문가회의 참가 시 개발도상국 참가자들의 비자 발급의 어려움에 대한 불만과 개선 요청이 제45차 총회(2017.3., 멕시코 과달라하라)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관용여권의 경우 105개국과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나(17년 2월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및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현지 대한민국 영사관 및 대사관을 통한 비자 신청이 필요하므로, 회원국 대표단들이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48차 총회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첨부문서(제47차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총회결과) 참조

3. Suggestions and Remarks 건의사항

III. References (Presented and Collected Materials) 주요 수집자료

(with attachment of any information or report in case of attendance of conferences, workshops and meetings) 학술대회, 워크숍, 회의 등 참석 시 관련 정보 및 문서 첨부

V. 핵심 요지

-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경과보고)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및 요약보고서가 아국에서 개최되는 제48차 IPCC 총회에서 회원국의 승인을 목표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작성되고 있음.
- (TGICA 장기 비전 채택) 제6차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TGICA의 장기 비전을 ▲자료 활용 증진을 위한 역량 배양의 자체 운영 지양, ▲기후변화 평가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자료와 시나리오 지원 집중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TGICA를 TG-DATA로 개명함.

VI. 관찰 및 평가

-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경과보고)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의 중요성에 관한 공감대가 회원국 사이에서 상당히 형성된 것으로 사료됨.
- (영향 및 기후 분석을 위한 자료 및 시나리오 지원 태스크그룹의 미래에 관한 태스크포스(ATF-TGICA) 경과보고) TGICA의 장기 비전이 기후변화 평가를 위한 자료의 취합과 활용에 집중되고, 3개 DDC 운영국 중 영국이 DDC 운영을 위한 현물 기여가 장기적으로 보장될 수 없음을 언급하는 등 IPCC에서 TGICA/DDC의 기능과 역할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VII. 회의 내용

6. 경과보고

6.1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 제1실무그룹 의장단은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작성을 위한 주저자 회의, 특별보고서 1차/2차 초안 및 요약보고서 초안 집필 현황, 저자 변경 현황,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고 회원국은 이를 승인함.
- 4차례의 주저자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차 초안의 전문가 검토와 2차 초안 및 요약보고서(SPM)의 전문가 및 정부 검토를 수행함.
- 주저자 회의 참석 및 기여가 어려운 6명의 주저자가 사임하였으며, 2명의 검토

위원과 4명의 주저자(선진국 2명, 개도국 2명)가 신규 선임됨.

- SPM 작성 일정이 촉박한 점을 감안하여 특별보고서 최종본 편집이 완료되면 SPM 저자가 참여하는 회의 개최를 요청함.
- 각국 대표단 및 옵저버 기구는 1.5℃ 특별보고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검토의견이 특별보고서와 SPM에 적절히 반영될 것을 요청하였고, 의장단은 6~7월에 정부 검토가 예정되어 있음을 상기함.
- 잠비아, 인도 등은 주저자 사임 배경과 신규 선임된 주저자의 지역적 안배에 관해 질의하였으며 의장단이 대응함.
- 필리핀, 말리 등은 특별보고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가급적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각 chapter별로 중요 내용이 요약되기를 희망함.
- 일부 국가(필리핀, 러시아 등)는 1.5℃ 상승과 2℃ 상승의 후과(consequence)에 대한 비교가 강조되기를 희망함.

6.4 영향 및 기후 분석을 위한 자료 및 시나리오 지원 태스크그룹(TGICA)

- TGICA 의장단은 제46차 총회 이후의 TGICA 주요 활동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회원국은 이를 승인함.
- 주요 활동 사항은 ▲DDC 지원 그룹 신설, ▲시나리오 사용에 관한 일반 지침 초안 작성, ▲기후 다운스케일링에 대한 Fact Sheet의 2차 초안 작성, ▲TGICA 웹페이지 갱신 등임.
- TGICA 활동을 위한 원격 회의를 1회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도 소규모 원격회의를 수차례 개최할 예정이나, 전체회의는 TGICA와 DDC의 미래에 관한 의결 이전에는 예정되지 않음.

11. 영향 및 기후 분석을 위한 자료 및 시나리오 지원 태스크그룹의 미래에 관한 태스크포스(ATF-TGICA) 경과보고

- ATF-TGICA 의장단은 향후 TGICA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수행한 활동을 보고함. 특히 ▲TGICA/DDC 기능 전환과 우선 순위 정립을 위한 장기 비전, ▲TGICA/DDC 기능 전환에 따른 새로운 임무와 운영준칙을 수립하고 회원국은 이를 승인함.
- TGICA의 장기 비전으로 ▲IPCC 평가보고서를 위한 자료의 취합과 활용 촉진 뿐

아니라 자료 분석 기능의 강화, 품질 관리, 자료 활용 증진을 위한 역량 배양 등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거나 혹은 ▲IPCC 평가보고서를 위한 자료의 취합과 활용에 집중하는 방안을 경과보고서의 부속서 5에 제시함. IPCC 의장은 side meeting을 통한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요청하였으며, 회원국은 후자를 선택함.

- ATF-TGICA 의장단은 선택된 TGICA의 장기 비전을 반영하기 위해 경과보고서의 부속서 7에 제시한 기능 전환에 따른 임무와 운영준칙을 수정하고 TGICA를 TG-DATA로 개명한 CRP를 제시함.
- 3개 DDC 운영국 중 영국이 DDC 운영을 위한 현물 기여가 장기적으로 보장될 수 없음을 언급하고 이를 CRP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ATF-TGICA 의장단은 CRP를 수정하였으며, 회원국은 수정된 CRP를 승인함.

15. 개도국의 IPCC 활동 참여

- IPCC 사무국은 개도국의 IPCC 참여 증진을 위한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각국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특히 평가보고서 승인 시 개도국 대표단 지원과 입국허가(VISA) 발급에 관한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한 결의문을 제시하고, 회원국은 이를 승인함.
- 제45차 IPCC 총회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사전 브리핑은 전반적으로 회원국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됨. 독일 등은 사전 브리핑의 형식(모든 회원국 참여) 및 내용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함.
 - 사전브리핑은 향후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함.
- 네덜란드는 개도국의 평가보고서 참여와 이해 증진을 위해 e-learning course를 진행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독일, 캐나다 등이 해당 활동을 지지함.
- 인도는 개도국, 바하마는 군소 도서국의 참여 확대를 요청함.
- IPCC 위원회 멤버는 평가보고서 승인과 관련된 의제가 통상 총회 중반에 논의되어 귀국 일정이 촉박한 개도국 대표단이 승인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으며, 일부 개도국(토고, 보스와나, 바하마 등)이 동의함
- 독일 등은 평가보고서 승인 일정의 연장을, 독일, 캐나다, 인도 등은 평가보고서 승인 일정이 연장되는 경우 개도국 대표단의 체류비 지원 방안 제시를 요청함.
 - 평가보고서 승인을 위해 개도국 대표단의 체류 연장이 필요한 경우, IPCC 사무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신탁기금의 활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3실무그룹 부의장과 TFI 공동의장은 VISA 발급의 제약으로 공동의장단 및 보고서 저자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을 언급하였고, 다수 국가(사우디아라비아, 에디오피아, 볼리비아, 남수단, 보스와나, 우크라이나 등)가 거듭 언급함.
- 제1/제2실무그룹 부의장, IPCC 위원회 멤버 등은 총회 개최국의 적극적인 의지와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함.
 - IPCC 사무국은 원활한 VISA 발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의결함.